

제 123 호

사 백 주 일

1975. 4. 6.

숲 정 이

발행인	김 중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 강 루 □



풍 전 등 화 [風前燈火]

이 대 권 신 부

오늘의 세계는 실력, 총력 대결의 세계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 제 나름대로의 있는 힘을 총동원하여 살려고 꿈틀거리는—즉 부활코자 하는 것—그것이 바로 공존공영하는 평화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실패의 요인을 책임전가시켜 패배의 쓴 잔을 스스로 불러드리는 「풍전등화」의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정치배우들이 인기나 호감만 사려고 무책임한 연기를 하다가 많은 민족에게 십자가를 안겨주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셀라시에, 일본의 다나카, 미국의 닉슨, 크메르의 론놀, 월남의 티우순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으며, 중동·동남아시아 등 「풍전등화」의 파장이 신경을 날카롭게 해주고 있으니 문제해결의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명안이나 타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야말로 불안일로인 것같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벽구름이 온세계에, 아니 붉은 말발굽 소리가 시간을 다루고 초조해지는 오늘의 역사는 파티마 성모님의 예언을 상기시켜 주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길은 무엇입니까? 부활할 길은 무엇입니까? 많은 뱃시지, 성명서, 정강정책, 무더기 법률통과 사록지침, 경제정책 등은 무엇을 말합니까?

「풍전등화」처지인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책임전가만을 일삼을 시기는 아닐것 같아 깨와 닭과 돼지의 대화로 엮어진 우화 한토락을 소개해 봅시다.

- <닭>—개나리님, 왜 요즈음 잘 안젓나요?
 <개>—닭공주님, 이제 도둑을 보고 쫓자니 가책을 느낍니다.
 <닭>—그게 무슨말씀이죠? 개박사님의 책임이 무언데?
 <개>—그럼 닭공주님은 시간 맞추어 잘 우시나요?
 <닭>—아니게 아니라, 저도 좀 췌기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대화나 좀 나누어 봅시다.
 <개>—우리 주인나리께서도 도둑은 아니라고 믿는데, 가끔 무엇을 뚱뚱뚱 잡수시는 것 같아서 이터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닭>—그 심정알 만합니다. 제 처지도, 사람들이 밀수한 고급시지만 차고서 멧을 부릴줄 알라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책임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개>—대화를 나누고 보니 핑계없는 무덤이 없군요. 꿀꿀 박사님은?
 <돼지>—저야 밀바닥만 기는 서민층 주재지만, 큰소리로 꿀꿀대야 「모난 물로 바로 맞는다」고 푸주잔 신세 면하기 어렵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합구무연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살 길이란 오로지 주님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서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요? (중앙성당 주일 신부)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임당송 갖난아기 같이 너희도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써 너희는 자라나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 제 1독서 (사도행전 2:42-47 성서 P 290)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 놓았다.
 □증계송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영원도 하시어라 그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사랑”
 아하론의 집안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사랑”
 일컬으라, 하느님 경외하는 자들아 “영원하신 그사랑”◎
 □제 2독서 (베드로 전서 1:3-9 성서 P 528)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이 안겨졌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었으나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참 행복하다. 알렐루야.
 □독음 (요한 20:19-31 성서 P 259)
 팔일 후에 예수께서 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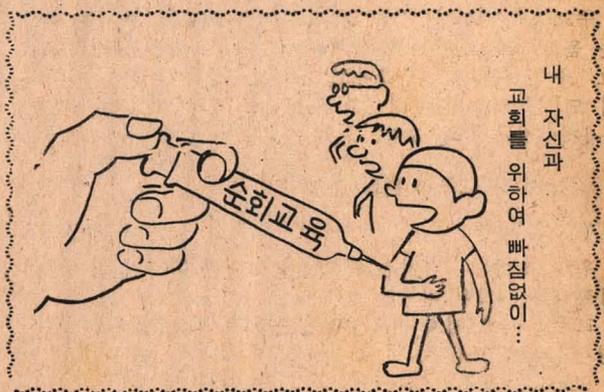
□신자들의 기도

1.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여, 당신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들은 나만을 생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이웃을 당신 말씀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 주소서◎
2.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주께비오니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월권하는 일 없이 국민을 위해 결손하고,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비추어 주시며, 매사를 주의 뜻에 맞게 처리하소서◎
3. 부활의 희망을 품고 세상을 떠난 모든이를 위하여 주께 비오니, 당신 부활의 영광을 하루속히 맛보게 하소서◎
4.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친주여, 당신 백성들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어 구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3) 성찬의 전례

- 불헌 □ 성찬식 □ 부활 감사송 제1
 □영성체송 네 손으로 이 못자국을 짚어 보아,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알렐루야.

숲 정 이 산 채



성소 계발〔聖召 啓發〕, 누구의 일인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들과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또 목자없는 양과도 같이 시달리고 지쳐버린 군중들을 보시고 그들이 가없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줍시라고 청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태오 9: 35-38)

과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사제성소와 수도성소의 감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그냥 버려 두어야 할 일인가? 성소계발, 이 사명은 누구의 일인가? 그래서 성소주일(4월20일)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특 집① (4월 6일) ... 성소계발, 누구의 일인가?
- 특 집② (4월 13일) ... 사제양성 후원사업, 어디까지 왔나?
- 특 집③ (4월 20일) ... 나의 성소

1 공의회가 가르침

“〈집안 교회〉라고 할만한 가정에서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컷 스승이 되어야 하며 각자의 성소, 특히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를 특별한 배려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11항)

“갈망하던 은 성교회의 쇄신(刷新)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제들의 봉사활동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성스러운 공의회는 잘 알고 있으므로, 사제양성의 중대성을 천명하는 동시에, 그 기본원칙 몇가지를 선언하는 바이다.”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서문)

“성소 육성의 의무는 전(全)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생활로써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들이 마치〈준비 신학교〉와 같이 될 때, 이 일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며, 또 본당들이 그 중요한 생활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킬 때,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 교사들과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청소년들의 교육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히 가톨릭 운동 단체들과 어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청소년들을 계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모든 사제들은 성소 육성에 사도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야 하며, 자신들의 결혼하고 부지런하며 명량한 생활과 사제적 상호(相互) 애덕과 형제적 협력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이들의 마음을 사제직으로 이끌어야 하겠다.”

주교들이 해야 할 일은, 성소 육성을 위하여 자기를 양을 움직이고 모든 힘과 노력을 긴밀히 규합하도록 힘쓰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판단된 젊은이들을 자각같이 도와주며 여하한 희생도 사양하지 않는 그것이다.”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2항)

2. 우리 교구의 현황

(1) 성직자

우리 교구의 성직자는 주교님을 비롯한 51명의 한국인 성직자와, 4명의 외국인 성직자가 있다.

교구청...5명(김재덕 주교, 김종택 부주교, 범석규, 김영신, 배영근 신부)

본당...31명

- 특수사목...3명(문정현, 유장훈, 지정환 신부)
- 군중...4명(성민호, 고경훈, 서용복, 이수현 신부)
- 신학교...1명(이병호 신부)
- 의국...3명(박영규, 김치삼, 이수민 신부)
- 은퇴...5명(이철연, 김후상, 김영구, 송남호, 김영태 신부)

아직도 31개 본당 가운데 사제를 모시지 못한 대야 본당이 있는가 하면, 노령으로도 본당 사목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수고하시는 사제도 계시다. 특수사목으로는 성심해성학교의 종교감신부가 있기는 하지만, 근래에 부쩍 늘어나는 대학생 예비자 지도나 대학생 지도, 고등학생 지도, J.O.C지도를 전담하는 사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2) 수도자

교구내에서 활동하는 수도단체는 성프란시스코 수도회 성체수녀회, 샤르브르 성 바오로 수녀회, 작은 형제수녀회, 착한 목자 수녀회,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동정 성모회 등이 있다.

- 〈성 프란시스코 수도회〉...노송동 본당 사목
- 〈성체 수녀회〉...교구청, 본당, 학교, 병원, 유치원
- 〈작은 형제 수녀회〉...나환자 진료 (고창 동혜원, 함열 상지원)
- 〈착한 목자 수녀회〉...사회사업(옥봉 기술 양성소)
-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출판물 보급(성 바오로 서원)
- 〈동정 성모회〉...의료사업(이리 성모병원)

(3) 신학생

교구내 신학생은 59명으로 금년 7월에 7명이 사제서품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다.

- 부제(연구과 3학년)...7명
 - 시종직(연구과 2학년)...7명
 - 독서직(연구과 1학년)...11명
 - 연구과 1학년(未受品)...3명
 - 4학년...8명, 3학년...3명, 1학년 5명, 군대 입대...14명
 - 모라토리움(임시 휴학)...1명 (성심여고 근무)
- 다행히 현재까지의 실정으로는 펍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신학생 양성을 위한 교구의 재정적인 부담은 너무나 크다.

□1975년은 성년(聖年)□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

악순환을 타개하는 길

「네가 일곱 삼발해(註: Sabbatical year, 安息年), 즉 7년을 일곱번 세면 일곱 삼발해라는 기간은 49년이 될 것이다. 너는 일곱째 달의 열흘날 큰 나팔소리를 울려 보내라. 속죄의 날에 너희 온 땅에 나팔소리가 울리게 하라. 너희는 이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한 해(聖年)>으로 선포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농토와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라. 너희는 이 해를 경축해로 삼아 각자 자기 지파로 돌아가게 하라.」(레위기 25:8-10)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나라 백성의 가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가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게 되었다. 이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가난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밀어주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말하기를 “가난이 가난을 낳는다”고 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적은 생산→적은 수입→적은 수요와 적은 저축→적은 투자→적은 생산.
 영양 실조→나쁜 건강→노동력의 결핍→적은 임금→영양 실조.
 교육의 결핍→실직→가난→학자금의 부족→교육의 결핍

저개발의 여러가지 복잡한 원인들은 흔히 「악순환」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악순환은 꼭 자본의 부족으로만 생기는 것도 아니며, 후진성 때문에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악순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들은 서로 다른 원인들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는한 저개발을 읊어대는 고리쇠 중 한 매듭도 풀 수 없는 것이다.

-하일브로우너 (Robert L. Heilbroner, 영국 경제 역사학자)!

미국에서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전 봉급장이가 2~3만 달러의 연봉을 가지고 3만달러 짜리의 깨끗한 집 한채를 25년에서 30년 담보로 사서 세상에 다시 없는 호젓한 잠을 가지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미국사회의 생활상을 잘 안다. 그나마 자기집이라고 처음 장만하는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35세에 달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매체로 한달에 250달러에서 300달러에 달하는 담보금, 이자, 원금, 재산세, 보험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은행에 내게되며, 거의 60세가 되어야야 완전한 집 한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국민소득 2,600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민들의 생활실태다. 얼마나 진정한 생활태도인가?

한국의 경우 월봉 5~6만원에서 많이 받아야 10만원 받는 공무원이나 은행원들이 천만원에서 억대까지 가는 주택을 장만하고 있고, 더우거나 담보 하나 없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인의 생활의 기적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런가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월 평균 소득 2만여원을 가지고 4~5인의 가족을 부양하며, 매년 20%에서 25% 상승하는 물가고 속에서 저하되는 구매력을 움켜잡고 빈곤과 싸우고 있다. 고르지 않은 이 세상의 악순환은 빈곤이 빈곤을 더하게 하며, 부유한 사람은 더욱 더 부유해지게 한다. 이러한 데서 오는 빈부의 차는 경제성장에 따라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져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준다.

-이 종익, 「한국사회의 불안과 사회정의의 실현」(기독교 사상 71년 11월호)에서.

요심이 (89)



주교님 일본에 무사히 다녀오세요



일본여행때 쓰시라고 요심이가 큰가방을 보냈군요



아-무겁다



주교님 일본구경을하고 싶으니 이가방을 들고 가주세요

□신용조합
전화번호 변경 안내□

신용 지구 평의회 ☎ 8185
 중앙 신용 조합 ☎ 9195
 대전(전동)신용조합☎4530

○월고 모집○
200자 원고지 5매 정도.

○광고 모집○
 <숲정리> 편집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봉사하겠습니다

현대 광고사

*아크릴.각종간판.아취.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카메라수리

송 흥 섭(토마스)

전화 ☎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베거리 중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4577)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출장비 무료

유 원 상(돈보스코)

전주 동부시장동 (전화 ☎913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분당 순회 교육 (4월13일 오전 10시-오후 4시)-노송동, 덕진, 상관 성당.
(4월 6일 오전 10시-오후 4시)-중앙, 전동, 복자 성당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4월 16-18일, 가톨릭 센터, 회비 2,500원)
3. 제1차 여성 꾸르실로 (4월 22-25일, 가톨릭 센터, 회비 4,000원)
 - ① 참가를 희망 하시는 분은 본당 신부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여성 꾸르실로의 성공을 비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 ※ 사전 심사관제로 각 분당에서는 추천서 제출 기한(4월10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김종택 부주교님 은경 축하식(4월14일): (미사)11시, (파티)12시 많은 교우분들의 기구와 협조를 바랍다
5.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다음 주일(13일) 전동 성당에서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중앙, 복자, 서학, 전동)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②3874 보좌 신부 박 종 상
사도 회장 김 영 진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교회 살림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길!
3. 성도 유치원 개원식: 4월 7일 10시
담당 수녀님 2분 부임
많은 귀염둥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후동 박공순씨 자 김병무 전자출금 회사금: 3,000원 감사합니다.
5. J.O.C 일반회: 4월 12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7. 미사시간 변경: <오전>6시, 10시 <오후>7시 30분
8. J.O.C 임시 총회: 공식미사 후, 중앙 회합실
9. 고등학생 신입생 환영회(오늘 공식미사 후)

3. 부녀부 「부활주 행사 성당 제대 커튼」 마련에 감사 드립니다.
4. 무명 제대 화분 기증: 서 말가리다 할머니
5. 축 결: 훈: <4월 6일 11시>
신랑 김 영광 군 신부 박 천우 양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분당 순회 교육: 오늘 10~ 오후 4시까지
2. 복자 성우회: 다음 주 공식미사 후
3. 고등학생 신입생 환영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성미 3말 4되 누계 375.3되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사도회 월례회: 저녁 미사 후
2. 오늘 강론: 노송 합신부께서 성당 건축을 위한 미사와 강론함. 저축위원들은 성금을 성의껏 해주시기바람
3. 교구청 상관 순회 교육: 10시~ 오후 4시
4. 반회합 <8일> 11반 <9> 10반 <11> 9반
5. 미사시간 변경: 오늘 주일 저녁 미사 부터 7시 30분→8시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3. 교구 순회 교육 <피정> 10시-오후 5시까지
4. 부주교님 은축을 맞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금 봉헌시 같이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하느님의 공전을 신축하는데 성심껏 협조합니다
6.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노1가 방소자: 5,000원, 인후1가 양누시아: 2,000원
남노 장제마: 800원 신원리 송기호: 500원
다리공소 교우 피정 예물 신축에 기탁 최 마리노신부: 10,000원 성바오로 수녀님: 5,000원
누계: 23,300원 누계 1,992,517원
7. 서학동성당에서 노송성당 신축헌금 회사받을 4월6일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사도 회장 이 현 재

1. 사도회 월례회: 저녁 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10시 미사 후
 3. 유아 세례: 10시 미사 후
 4. 아동 첫 영성체: 9시 미사 중
 5. 교구청 순회 교육: 10시~ 오후 4시
 6. 다음 주일 미사 강론: 노송동 합승천 신부
- * 축 대건 신용협동조합 총 자산 1억원 돌파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② 4530
이사장 한 수 옥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교구청 순회 교육: 다음 주 10~16시까지
2. 군인가족 친척 신자 돕기 운동
군인있는 신자는 주소를 본당 사무실에 접수 바람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유 석 중<스테파노> 재정부 차장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부 신 태 인 유 정	교회 담장 쌓기 운동에 적극 참여	11,530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동 등	성경 경시 대회 시상식	55,840원
		사도회 월례회 어려운 본당 살림에 협조합니다	30,980원 14,515원			사도회 월례회	82,890원
제 2 지구	대 문 월 명 중 합	안나회 월례회	43,080원	제 4 지구	중 노 송 동 덕 부 서 학 동 전	사도회 월례회	116,470원
		성서를 가지고 미사에 참여합니다	4,660원			사도회 월례회	49,041원
		사도회, 학생회, 성심회 월례회	60,500원			군인 신자 가족돕기 운동 전개	22,605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사도회 월례회	43,246원	제 5 지구	남 무 장 진 순	교구청 순회 교육	27,010원
		사도회 월례회	27,480원			사도회 월례회	30,115원
		사도회 월례회	27,385원			사도회 월례회	108,906원
		사도회 임원회	22,710원			사도회 임원회	17,780원
		회장단 회합	19,530원				원